



철저한 사전 점검, 안전확보를 위한 시작

Automotive Total Interiors
HANIL E-WA CO.,LTD 한일이화 주식회사 아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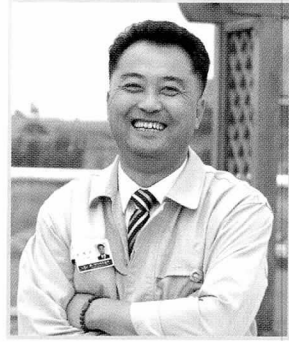
■ 무한한 도전과 창조적 열정의 한일이화

1972년 설립된 한일이화 주식회사는 Door Trim, Head Liner Overhead Module, Rear Shelf 등 자동차 내장부품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서울의 본사를 거점으로 국내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중앙연구소를 두고 있고, 전 세계 8개국 16개 공장에서 4,052명의 근로자들이 자동차 내장부품 최고의 메이커, 한일이화를 위해 뛰고 있다. 1995년 인도네시아 KBU사 Bus 시트를 설계 및 개발, 기술원조계약을

시점으로 1997년 터키, ASSAN-HANIL 합작회사를 설립, 2000년 이란, KHODRO사와 기술원조 협조 계약 등 해외생산거점을 확보로 한일이화는 명실상부한 Global Total Interior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2003년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인 ISO 14001을 획득, 2004년 ISO/TS 16949 인증획득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품질뿐만 아니라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을 바꾸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안될 것 같던 일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안 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한 계획과 이를 실행으로 옮긴다면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 관리파트 이재근 차장

■ 2층 3층의 설비안전 장치로 안전사고 예방

처음 사무실을 들어서는 복도, 오후 시간인데도 약간은 어두워 일부러 불을 꺼 놓았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천장의 등이 하나 둘씩 켜져 환해졌다.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감지 센서를 달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감지 센서는 전 공장에 생산과 사무를 하는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절전의 의미도 있지만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달여 간의 테스트와 연구 끝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무실 한 쪽 구석에는 전자판넬로 이루어진 장치에 전 공장의 레이아웃이 그려져 있고, 현장의 설비들이 하나의 램프로 표시되어 어떤 것은 빨간불, 어떤 것은 노란불로 반짝 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한일이화 아산공장의 생산라인과 설비들의 배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설비와 곧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설비들이 램프색으로 구분되어 점등되는 안전점검 현황판이라 한다. 현장 라인에는 100여개의 설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안전점검 대상은 58개 설비로 한 달여에 걸쳐 안전관리자에 의해 꼼꼼히 점검되어 지고 있다. 매일 매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설비를 체크한 후에 이곳에 설비별로 버튼을 눌러 점검과 미점검을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점검 현황판은 사무실뿐 아니라 현장에도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를 포함한 전 사원들이 점검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곳 한일이화의 생산 공정은 사출공정, TG공정, NF공정, VQ공정으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사출공정에서는 1,300톤의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어 협착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각 프레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물론 슬라이딩방식으로 성형된 제품을 꺼낼 때 근로자가 직접 손을 프레스 안으로 넣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VQ공정에 초음파 용착기를 설치, 본드의 사용을 없애 유해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고, 작업대를 공압을



▲ 생산파트 이상필, 민경일 사원



▲ 소재파트 김동원, 강민수 사원




▲ 생산파트 NF라인 엄영선 사원



이용하여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약 800여개의 파렛트를 사용하던 것을 300여개로 줄여 레일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게하고 피딩작업을 없애는 대신에 자동 대차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드는 들기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 Fun 교육으로 안전한 회사 만들기

안전교육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리 흥미로운 주제는 아닐 것이다. 사고에 대해 말하며 즐겁

게 교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딱딱한 교육은 결국 집중력을 떨어뜨려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한일이화 아산공장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Fun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한일이화 아산공장, 안전에 있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

Interview

한일이화 아산공장 문희재 공장장

무재해 일터 가꾸기, 커다란 모험이자 도전

한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모험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앞서 나가야 하며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이룩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곧 한일이화 아산공장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창조한다는 것, 그것은 멀고도 험한 일입니다. 안전에 관한 창조적인 끝없는 열정으로 재해가 없는 사업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써 무재해 공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